

현대홈쇼핑이 31일까지 '19주년 고객감사대전'을 진행한다. 7일 오후 8시45분 방송하는 '포나리나 스텔라 업부츠' 구매후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버버리 체크 캐시미어 머플러'를 경품으로 준다. 렌탈 상품 상담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를 증정한다.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 전년비 27.5%↑...커리두기 영향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용품, 가전·전자·통신기기 구매와 배달음식 등 음식 서비스 거래 증가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11조 2786억 원)보다 27.5% 증가한 14조 3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상품군별로 보면 피자과 치킨 등 온라인 주문 후 조리돼 배달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조 67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0% 급증했다. 그 외 생활용품(59.3%)과 가전·전자·통신기기(48.8%) 거래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배달음식과 간편 조리식 수요가 늘고 집 꾸미기 용품과 생활가전 등의 거래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9조 32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음식서비스의 경우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이 94.4%에 달했다. 모바일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10월 창립 13주년 기념 이벤트

신한카드가 31일까지 창립 13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신한카드 이용 시 1313명을 추첨해 최대 1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온라인 및 전자상거래 업종 이용 시 추첨을 통해 무선청소기, 음식물 처리기, 마사지기 등을 증정한다. 또 신한카드로 배달앱에서 10만 원 이상, 편의점에서 5회 이상,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정기 결제 이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1313명에게 5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준다.

BC카드 '금융 빅데이터 헬렌지' 공모전

BC카드가 20일까지 '2020 금융 빅데이터 헬렌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자에게 카드 매출, 아파트 시세, 부동산, 맛집, 유동인구 등 공모전 용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분석해 제조기업 투자 매력도, 부동산 시세, 전트립케이션(스관 내몰림 현상) 예측 등에 대한 결과물을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3명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창의성, 사업성, 완성도 등이 평가 기준이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한지 기자 mythuki@donga.com

비즈 포커스 | 인터넷전문은행을 누가 '찾잔 속 태풍'이라 했나

케뱅크 '공격경영'·카뱅 '상장추진' '막둥이 2K' 금융가 혁신 이끈다

케뱅크, 주주사 맞손...과격상품 출시 44달러 프로모션·10% 금리 인기 카뱅, 내년 하반기에 기업공개 시총 46조...4대금융 총액보다 커

그간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이며 '찾잔 속 태풍'에 그쳤던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가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월 대규모 자본 확충에 성공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주주사와 협업한 혁신 상품을 꺼내드는 등 공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와 카드사 등 금융사를 주주로 두고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 과격적 상품으로 중무장했다.

주주사인 NH투자증권과 손잡고 하반기 IPO(기업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일반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4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며 이자는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공모주 청약 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케이



인터넷전문은행이 파격 상품과 IPO 추진 등으로 금융가에 세 혁신을 이끌고 있다. 케이뱅크-우리카드가 협업한 '핫딜적금X우리카드(왼쪽)와 카카오뱅크-이마트가 손잡고 내놓은 '26주적금 with 이마트'.



사진제공 | 케이뱅크·이마트

뱅크 앱에서 NH투자증권 나무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4달러를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실시했다.

또 다른 주주사인 우리카드와 손잡고 최대 연 10% 금리의 '핫딜적금X우리카드'를 선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케이뱅크 측은 "향후 주주사와 계열사의 특장점을 활용한 금융상품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주적금과 모임통장 등으로 눈길을 끌었던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추진한다. 9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IPO 추진을 결의하고 연내 감사인 지정 신청과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IPO추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본확충 수단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장외 주식거래 시장 시가총액은 약 46조 원에 이른다. 이는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큰 액으로 카카오뱅크가 금융권 IPO 최대어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3년 IBK기업은행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후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은행 상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이 커지는 게 금융권의 목소리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한국맥도날드 "2025년까지 친환경 포장재로 교체"

사회·환경 등 4개분야 실천계획 발표 전기바이크로 배달...청년고용 확대

한국맥도날드는 5일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4개 분야의 새로운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분야는 '우리의 지구', '식재료 품질 및 공급',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및 포용·직업개발'이다.

먼저 맥도날드는 친환경 정책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환경 친화적 포장 운영 계획을 내놨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모든 포장재를 재생 가능하거나 재활용된 또는 인증 받은 원자재를 사용한 포장재로 전환하고, 포장재에 사용되는 잉크도 천연 잉크로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2021년까지 '맥딜리버리'에서 사용하는 바이크를 전기바이크로

100% 교체할 예정이다. 식재료 품질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는 커서비스 레스토랑 업계 최초로 타 식물성유지에 비해 포화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함량이 낮은 프리미엄유 100% 해바라기유를 전 매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한다. 맥도날드는 2019년 9월 중증 어린이가 환아와 가족이 병원 근처에 머물며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내 1호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RMHQ)를 오픈한 바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지역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행복의 버거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로 8년째인 이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제공된 행복의 버거는 약 25만 개 이상이다.

일자리 정책도 밝혔다. 맥도날드는 열린 채용과 직급 신설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5일 온라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회와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실천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맥도날드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급제 직원(크루) 및 리더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맥도날드는 지역사회 내 좋은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실천해 온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치만 큰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조크박 휴대폰 케이스 사세요"

롯데백화점이 온라인몰 롯데온을 통해 롯데제과와 함께 기획한 '조크박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한다. 롯데제과의 베스트셀러 아이스크림 3종인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바 상품의 디자인을 활용해 제작했다.

롯데백화점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코오롱스포츠, 'BT21' 캐릭터 플리스 출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라이프렌즈의 글로벌 밀레니얼 캐릭터 BT21을 담은 플리스 재킷 'BT21 코오롱스포츠 플리스(사진)'를 출시했다.

2019 FW시즌에 BT21과 선보인 'BT21 플리스' 7종이 평균 판매율 92%에 이르는 등 높은 인기를 얻자 이번 시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게 된 것.

코야(KOYA), 알제이(RJ), 슈키(SHOCKY), 망(MANG), 치미(CHIMMY), 타타(TATA), 쿠키(COOKY) 총 7개 캐릭터를 디자인 요소로 적용했다. 캐주얼한 후드는 일체형으로 BT21의 캐릭터를 자수로 패치했으며, 왼쪽 소매에는 BT21과 코오롱스포츠의 로고를 와펜으로 담았다. 포근한 느낌의 플리스 소재와 BT21 캐릭터가 만나 한층 귀여운 느낌의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남녀공용으로 XS, S, M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됐으며 퍼플컬러는 '치미', 블랙은 '타타'와 '코야', 화이트컬러는 '쿠키'와 '알제이', 브라운은 '슈키', 그린컬러는 '망' 캐릭터를 담았다. 10만8000원.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위메프, 농·축·수산물 직배송 서비스 시작

위메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현지 직배송 서비스 '갓신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메프 신선식품 담당 상품기획자(MD)가 현지에서 직접 상품을 확인해 우수 상품을 엄선했다. 갓신선 상품은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의 100% 환불 보장 정책을 적용 받는다. 상품을 받아본 뒤 품질에 불만족 시 사유를 불문하고 수령 다음 날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허리디스크, 수술은 마지막 선택...비수술 치료만으로도 통증 해결

허리디스크는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구조물로 정확한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이다.

추간판탈출증은 대표적인 척추 질환 중 하나로 추간판이 본래의 자리에서 밀려나와 후방에 위치한 척추신경을 눌러 다양한 형태의 통증이나 저림,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허리에 반복적인 압력과 회전력이 가해지면 디스크의 바깥 고리에 손상이 발생하며 디스크 내부에 수핵이 탈출하면

서 디스크 증상으로 나타난다. 허리디스크는 허리가 빠근하고 아프며 미약한 통증으로 시작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통증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만약 허리디스크를 단순 통증으로 여기고 방치한다면 허반신의 근력 저하나 이상 감각이 자각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대소변 장애나 성기능 장애 등의 증상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내원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허리디스크는 문진 및 이학적 검사, 영상의

학적 검사를 사용해 진단하고 치료 위치를 결정한다. 돌출 부위에서 따라 중앙부, 후측방, 추간공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치료 처방되어야 하는 만큼 정밀 진단을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요추디스크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쉽게 호전될 수 있다. 디스크 환자 중 약 80%는 증상 시작 후 6주 이내 완전히 회복되며, 90%는 12주 이내 통증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술적 치료는 마지

막 선택이 되어야 한다. 즉, 비수술 치료로 통증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권장된다. 허리디스크 초기에는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최대 2일간 침상 안정을 권하며 소염제, 근이완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온열 및 냉찜질, 마사지 등도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여전히 통증이 상존한다면 척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과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경막의 공간에 약물을 주사하는 '신경차단술'을 비롯해 '경막외 신경성형술', '고주파 수핵형성술' 등의 시술적 치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수술 치료 이후 꾸준한 도수치료나 물리

치료를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도수치료는 생리학적·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신체의 어긋난 균형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다. 전문 치료사의 손을 통해 환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척추의 미세한 틀어짐을 바로 잡아주고 신경 손상의 회복을 돕는다. 별도의 절개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무너진 신체 밸런스를 교정해 통증의 근본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고령의 환자나 기저질환을 지닌 환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영등포 바르에스통증의학과 김동연 원장